

## 성적 자기애가 20대 남녀의 성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

홍 연 주 이 주 영†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학과

본 연구는 20대 남녀의 성적 자기애적 성향이 성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20대 남녀 4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성적 착취와 성적 스킬은 남성이 더 높았으며 성적 권리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공격성은 남녀 차이가 없었다. 둘째, 남녀 모두 성적 자기애적 성향과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성적 상관을 보였다. 성적 자기애적 성향에서 남성은 성적 스킬, 여성은 성적 권리와 성적 스킬을 제외하고 성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을수록 성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남녀 모두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할수록 높은 성적 공격성을 보였다. 셋째, 성적 자기애적 성향과 성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는 남자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여성의 경우,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성적 착취만이 성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성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과 같은 인지적 과정이, 여성의 경우 개인의 성적 자기애와 같은 성격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적 자기애,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성적 공격성

\* 본 연구는 홍연주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주영,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학과, (02748)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 60,  
E-mail: jylee7694@dongduk.ac.kr

최근 한국의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대검찰청(2017)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94.7%가량 증가해 2017년에는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가 총 32,82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성적 공격성(sexual aggression)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활동으로, 속임 혹은 압력에 의한 성적 강요, 육체적 힘의 사용, 협박, 약물, 알코올의 고의적인 투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강압적인 성적 전략을 사용해 상대방이 성행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행위이다(Cook, Gidycz, Koss, & Murphy, 2011; Krahe & Berger, 2013; Wheeler, George, & Dahl, 2002).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성적 공격성을 성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성적 강압 등의 용어들과 혼용하며 사용하고 있으나, 성폭력도 성적 공격성과 같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강요를 하고 성적 삽입을 한다는 점에서 성폭력과 같은 성적 행동을 성적 공격성으로 통칭하여 정의할 수 있다(김성미, 임성문, 2017; 최인숙, 김정인, 2015). 성적 공격성은 피해자들에게 우울, 공포,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기고, 물질을 남용하게 하며, 자기 비난이나 플래시백 및 성기능장애를 경험하게 한다(이미정, 정수연, 양혜린, 2017). 심각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박경, 2006; 장진숙, 박경, 2006; 조현빈, 2006) 성적 공격성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성적 공격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남성들을 성적 가해자로 설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박경, 2008; 박다원, 이인혜, 2015; Fisher & Pina, 2013; Koss, Gidycz, & Wisniewski, 1987; McDermott, Kilmartin, KcKelvey, Kriedel,

2015) 이는 여성이 남성과 달리 타인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에서 비롯되었다(Struckman-Johnson, 1998). 이 외에도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인 가해를 더 많이 하였다는 보고(Krahe & Berger, 2013)가 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성적 공격성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Wright, Norton과 Matusek (2010)은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이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상대방에게 언어적인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armimar, Lyndun, Anderson과 Turner(1999)는 성적 공격성이 남성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하였고, Spitzberg(1999)는 남녀가 성적으로 강압적인 행동을 할 때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성적 공격성을 보이고, 남녀의 성적 공격성이 발현되는 특징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성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성격 특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애적 성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성적 자기애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통상적인 자기애와 달리 성적 영역에서 드러나는 자기애적 특성을 정의하고자 만들어진 개념이다(Hurlbert & Apt, 1991). 때문에 성적 자기애는 일반적인 자기애가 성적 영역에서 그 효과가 비일관되게 나타나는 한계점을 보완해주고 성적 영역에서의 자기애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한다(Widman & McNulty, 2010; McNulty & Widman, 2013, 2014). 성적 자기애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면 성적 자기애는 성적인 상호작용에서 자기중심적인 패턴을 보이고 성적 영역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 혹은 일탈적인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이라 할 수 있다(Hurlbert & Apt, 1991). 성적 자기애적 성향의 남성은 성적 활동이나 생각에 몰두하고 성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성적 자극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Hurlbert & Apt, 1991; Hurlbert, Apt, Gasar, Wilson, & Murphy, 1994). 성적 자기애는 성적 착취, 성적 권리, 낮은 성적 공감, 성적 스킬의 네 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Widman & McNulty, 2010). 성적 착취는 성적인 접촉을 위해 사람을 조종하려는 능력과 의지를 의미하고, 성적 권리는 개인의 성적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 그 사람의 권리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낮은 성적 공감은 성 파트너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이 낮거나 평가절하하려는 모습이며, 성적 스킬은 성적으로 성공한 것에 대한 느낌을 과장하거나 자신의 성적 스킬을 과장되게 생각하는 모습이다(Widman & McNulty, 2010).

성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Hurlbert & Apt, 1991; Hurlbert et al., 1994), 낮은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대인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불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상대방을 비난한다. 이런 특성은 성적 공격성으로도 나타나는데, 성적으로 각성된 상태에서 성적 자기애적 성향을 지닌 연구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성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Imhoff, Bergmann, Banse, & Schmidt, 2013). Franz 등(2018)은 실험연구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는 비디오를 선택한 남성은 성적 공격성을 보일 경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애적 성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성적 자기애는 그 하위요인별로 성적 영역에서 드러나는 특성이 성별에 따

라 다른데, Blinkhorn, Lyons와 Almond(2015)는 자기애적 성향 중 여성은 착취적 성향이, 남성은 권위적, 과시적, 과장된 자기애적 특성이 성적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고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이 성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자기애적 성향을 지닌 20대 대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기애적 성향으로 인해 다양한 개인 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이선경, 팔로마베나비테스, 허용희와 박선웅, 2014) 20대의 성적 자기애와 성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박다원, 이인혜, 2015). 특히, 20대는 성적 욕구가 활발하고, 성적 태도 및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임을 고려하여(김홍규, 허은주, 2003; 박다원, 이인혜, 2015), 본 연구에서는 20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자기애와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가 때로 비일관적이고 둘의 상관관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sup>1)</sup>, 특권분노, 허용적 성태도, 공감 능력 등의 제 3의 변인을 조절 혹은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자기애와 성적 공격성의

1) 본 연구에서는 강간통념(rape myth)을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통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강간통념이라는 용어는 강간이 일반적으로 통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rape myth를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으로 지칭하기로 하였다.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박갑제, 임성문, 2013; 박다원, 이인혜, 2015). 자기애적 성향의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타인에 대해 지배적으로 행동하는데(박갑제, 임성문, 2013), 지배적인 태도는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과도 관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애와 성적 공격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신념의 매개효과가 남녀 집단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강간, 강간 피해자, 강간범에 대한 편견 혹은 정형화되어 있는 잘못된 믿음이다(Burt, 1980; Lonsway & Fitzgerald, 1994).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성적 피해자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성 피해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의 원인으로 돌리게 한다(박지선, 김정희, 2011).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 귀인,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피해자의 성 경험에 대한 지각이 그 네 가지다. 여성 행동에 대한 오해는 여성의 특정 행동들이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왜곡된 신념이다. 성폭행 피해 책임 귀인은 성폭행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신념이다.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은 피해자가 음란하여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가 분노나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고한다고 믿는 신념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성 경험에 대한 지각은 강간 피해자의 경제적 배경, 피해자의 학대 경험, 피해자의 성욕, 성관계에 대한 평판 등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한다(이석재, 최상진, 2001).

Bushman, Bonacci, Van Dijk와 Baumeister(2003)의 실험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향의 남성들이 성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가해자에게는 지지적인 태도를 보였던 반면 피해자 여성은 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정환과 박은영(2017)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애와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성적 자기애적 성향이 강할수록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성적 권리가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예측하였다는 Long(2018)의 연구는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별로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석재와 최상진(2001)은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하는 남성의 경우 상대가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석재(1999)는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지니는 남성일수록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성폭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하는 경우 성적 공격성을 보였다고 보고되었다(Barner, 2003).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남성을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전제한 개념이기 때문에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제로 여성보다 남성이 여성의 '성'에 대한 입장을 왜곡하고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5; Aronwitz, Lambert, & Davidoff, 2012). 그러나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하위요인에 따라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최인숙과 김정인(2015)은 남성은 피해자 비난, 상대 행동의 오해,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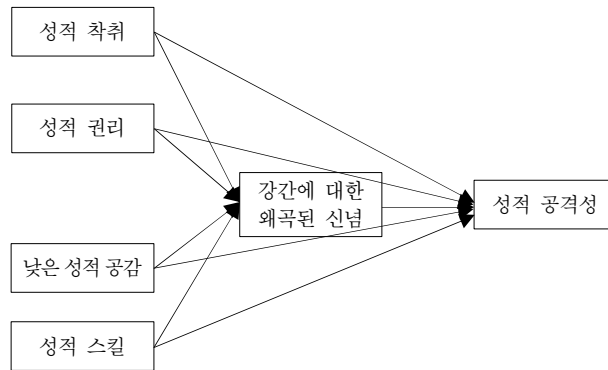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해자에 대한 책임 귀인을 더 많이 수용하고 여성은 남성의 성욕을 통제하면 강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하위요인을 더 많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고하였다. 따라서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하위요인에서의 성차도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이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매개로 하여 성적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남녀 집단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하위요인, 성적 공격성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나는지, 2) 남녀 집단에서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하위요인,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3) 남녀 집단에서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효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동덕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DDWU 1811-01). 연구 대상자는 전국의 20대 남녀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엠브레인 패널(<http://www.embrain.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설문은 총 4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추정되는 26명을 제외한 총 446명(남자 219명, 49.1%; 여자 227명, 50.9%)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25.6세( $SD=2.59$ )였다.

### 측정도구

#### 성적 자기애

성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Widman과 McNulty(2010)가 개발한 성적 자기애 척도(Sexual Narcissism Scale: SNS)을 최정환과 박은영(2017)이 번안한 K-SN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성적 자기에 척도는 성적 착취, 성적 권리, 낮은 성적 공감, 성적 스킬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성적 착취는 ‘나는 그(그녀)와 성관계 하기 위해 그(그녀)를 기꺼이 속일 것이다’, 성적 권리는 ‘나는 성행위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 낮은 성적 공감은 ‘성관계를 할 때 성 파트너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성적 스킬은 ‘나는 뛰어난 성 파트너이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2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성적 착취 .78, 성적 권리 .70, 낮은 성적 공감 .68, 성적 스킬 .87로 나타났다.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Burt(1980)의 강간통념척도를 번안한 이석재(1999)의 강간통념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며 총 20문항이다. 문항은 9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9점)로 평정된다. 하위요인은 여성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 귀인,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피해자의 성 경험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여성 행동에 대한 오해 .88, 성폭행 피해의 책임 귀인 .90,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87, 피해자의 성 경험에 대한 지각 .91로 나타났다.

### 성적 공격성

성적 공격성은 Koss와 Oros(1982)가 개발하

고 Koss와 Dinero(1988)이 수정한 것을 이중욱(2017)이 번안한 성적 가해 경험 질문지(Sexual Experience Surve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질문지는 각 문항에 대해 ‘0회(1점)’, ‘1-2회(2점)’, ‘3-5회(3점)’, ‘6-9회(4점)’, ‘10회 이상(5점)’ 중 어느 정도의 빈도를 보였는지 선택하도록 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문항의 예로는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동성 또는 이성)이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계속 설득과 압력으로 키스나 애무를 한 적이 있다’,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나의 지위를 이용하여 키스나 애무를 한 적이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7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2.0과 AMOS 20.0을 활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남녀 집단에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Bootstrapping 방법(Shrout & Bolger, 2002)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시에는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에 따라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하위요인은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 결 과

기술통계 및 t검증

먼저,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 분포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성적 공격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하지만, 성적 공격성의 왜도와 첨도 값은 각각 5.25, 32.49로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정적 편포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적 공격성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변인명	M(SD)	왜도	첨도	
성적 자기애	성적 착취	1.88(.71)	.478	-.52
	성적 권리	2.72(.99)	-.135	-.65
	낮은 성적 공감	1.88(.62)	.43	-.69
	성적 스킬	2.76(.79)	-.28	.29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2.02(1.28)	1.43	1.39	
성적 공격성	.96 (.12) <sup>a</sup>	-4.12 <sup>b</sup>	16.89 <sup>b</sup>	

a. 성적 공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역수 변환 이전에 계산한 것

b. 역수 변환을 실시한 이후의 왜도와 첨도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남	여	t
		(n=219) M(SD)	(n=277) M(SD)	
성적 자기애	성적 착취	2.05 (.70)0	1.71 (.67)0	5.21***
	성적 권리	2.61 (1.03)	2.81 (.94)0	-2.17***
	낮은 성적 공감	1.90 (.65)0	1.85 (.58)0	.74
	성적 스킬	2.90 (7.33)	2.62 (.81)0	3.80***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여성 행동에 대한 오해	2.60 (1.53)	1.76 (1.14)	6.51***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2.56 (1.65)	1.95 (1.53)	4.04***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2.47 (1.77)	1.40 (.97)0	7.86***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지각	2.07 (1.43)	1.51 (.89)0	4.90***
	성적 공격성 <sup>a</sup>	.95 (.14)	.97 (.09)0	-.18

a. 성적 공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역수 변환 이전에 계산한 것

\*p<.05, \*\*\*p<.001

변인에 한하여 역수 변환을 실시하였다. 역수로 변환한 식은 1/X로 X값은 성적 공격성의 본래의 값이다(Howell, 2009; Tabachnick, Fidell, & Ullman, 2007).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하위요인, 성적 공격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t검증 결과,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별로 평균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성적 착취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t=5.21, p<.001$ ) 성적 권리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t=-2.17, p<.05$ ). 낮은 성적 공감은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t=.74, ns$ ). 성적 스킬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t=3.80, p<.001$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경우, 여성에 대한 오해( $t=6.51, p<.001$ ), 성폭행 피해의 책임 귀인( $t=4.04, p<.001$ ),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t=7.86, p<.001$ ), 피해자의 성 경험에 대한 지각( $t=4.90, p<.001$ )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적 공격성은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18, ns$ ).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를 요약

표 3.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성적 착취	성적 권리	낮은 성적 공감	성적 스킬	여성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 귀인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피해자 성 경험에 대한 지각	성적 공격성 <sup>a</sup>
(1)		.489**	.240**	.415*	.318**	.249**	.234**	.263**	-.309**
(2)	.611**		-.146*	.420**	.135*	.051	-.028	.053	-.099
(3)	.379**	.101		-.229**	.243**	.216**	.319**	.276**	-.220**
(4)	.382**	.445**	-.227**		.133*	.147*	.012	.093	-.120
(5)	.405**	.206**	.438**	-.032		.874**	.662**	.664**	-.221**
(6)	.348**	.179**	.403**	-.072	.874**		.617**	.608**	-.211**
(7)	.220**	.024	.354**	-.505	.693**	.713**		.794**	-.263**
(8)	.324**	.104	.518**	-.111	.807**	.817**	.753**		-.332**
(9)	-.320**	-.179**	-.229**	-.119	-.319*	-.340**	-.333**	-.456**	

대각선 위쪽은 여자, 대각선 아래는 남자

a. 성적 공격성은 역수 변환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

\*\* $p<.01$ , \*\*\* $p<.001$



하면, 공통적으로 남녀 모두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할수록 성적 공격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을 비교하였을 때, 낮은 성적 공감과 성적 스킬은 동일하게 남녀 모두 부적 상관관을 보였으나, 성적 권리와 낮은 성적 공감에서 남성은 유의한 상관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r=-.101, m$ ), 여성은 두 하위요인이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r=-.146, p<.05$ ). 즉, 여성은 성적으로 권리적인 모습을 보일수록 성적으로 상대방을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과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성적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성적 스킬만이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및 성적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관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은 성적 스킬 뿐만 아니라 성적 권리에서도 유의한 상관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남성은 성적 스킬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하지 않았고 성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반

면 여성은 성적 스킬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성적으로 권리적인 모습을 보일수록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하지 않았고 성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성적 자기애와 성적 공격성: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

남성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검증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이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매개로 하여 성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성적 착취는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beta=.27, p<.01$ )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적 권리는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했으며( $\beta=.00, m$ ), 낮은 성적 공감은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beta=.36, p<.001$ ). 성적 스킬은

표 4. 남성의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성적 공격성 간의 경로계수

관계변인		B	$\beta$	S.E.	C.R
성적 착취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549**	.270	.170	3.233
성적 권리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005	-.003	.105	-.046
낮은 성적 공감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788***	.362	.150	5.250
성적 스킬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188	-.097	.139	-1.359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 성적 공격성 <sup>a</sup>	-.035***	-.340	.007	-4.846
성적 착취	→ 성적 공격성 <sup>a</sup>	-.020	-.098	.18	-1.109
성적 권리	→ 성적 공격성 <sup>a</sup>	.001	.010	.130	.896
낮은 성적 공감	→ 성적 공격성 <sup>a</sup>	-.029	-.130	.017	-1.715
성적 스킬	→ 성적 공격성 <sup>a</sup>	-.028	-.141	.015	-1.912

a. 성적 공격성은 역수 변환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

\*\*  $p<.01$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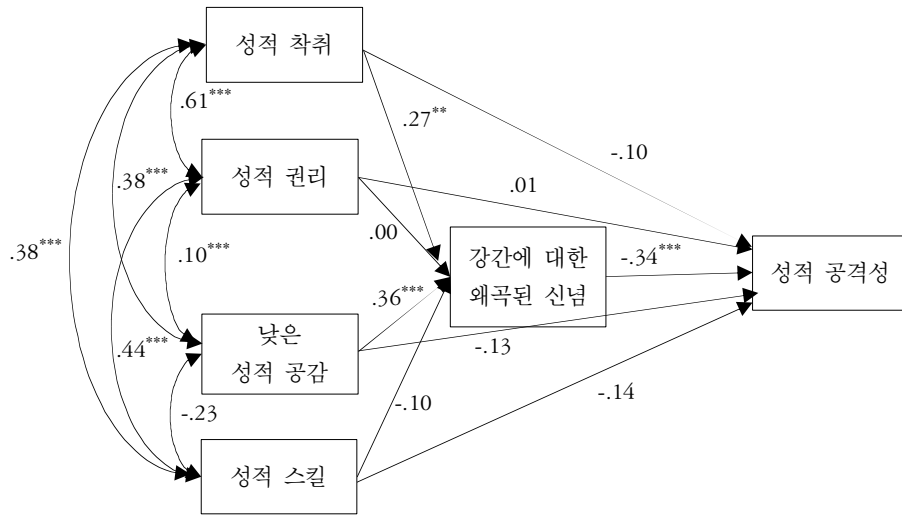


그림 2. 남성의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과 성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모형과 표준화계수 추정치  
 \*\* $p < .01$ , \*\*\* $p < .001$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beta = -.10, ns$ ).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성적 착취( $\beta = -.10, ns$ ), 성적 권리( $\beta = .01, ns$ ), 낮은 성적 공감( $\beta = -.13, ns$ ), 성적 스킬( $\beta = -.14, ns$ ) 모두 성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성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beta = -.34, p < .001$ ). 이를 통해 남성의 성적 착취와 낮은 성적 공감은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역시 성적 공격

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성적 자기애의 각 하위요인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유익하게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실시하였다.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고,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성의 성적 착취가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거쳐 성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는 신뢰구간이 [-.198, -.015]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

표 5. 남성의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과 성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

경로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p
성적착취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 성적 공격성	-.092	[-.198, -.015]	.009
성적 권리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 성적 공격성	.001	[-.040, .061]	.897
낮은 성적 공감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 성적 공격성	-.123	[-.223, -.030]	.010
성적 스킬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 성적 공격성	.033	[-.016, .088]	.144

Bootstrap = 1000

하게 나타났다. 낮은 성적 공감도 마찬가지로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거쳐 성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의 신뢰구간이 [-.223, -.03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성적 권리( $p=.897$ )와 성적 스킬( $p=.144$ )이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매개로 성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남성의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성적 착취와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 그리고 낮은 성적 공감 능력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검증**

여성의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이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매개로 하여 성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과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성적 착취( $\beta$

$=.22, p<.01$ )와 낮은 성적 공감( $\beta=.25, p<.001$ )은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적 권리( $\beta=-.03, m$ )와 성적 스킬( $\beta=.11, m$ )은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성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beta=-.18, p<.01$ ). 성적 착취는 성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나( $\beta=-.22, p<.01$ ), 성적 자기애의 나머지 하위요인인 성적 권리( $\beta=.02, m$ ), 낮은 성적 공감( $\beta=-.13, m$ ), 성적 스킬( $\beta=-.05, m$ )은 성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성적 착취와 낮은 성적 공감은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며,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또한 성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을 보면, 여성의 경우 성적 자기애의 각 하위요인이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매개로 성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신

표 6. 여성의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성적 공격성간의 경로계수

관계변인		B	$\beta$	S.E.	C.R
성적 착취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324**	.217	.121	2.686
성적 권리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036	-.034	.091	-.445
낮은 성적공감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427***	.248	.121	3.535
성적 스킬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140	.113	.031	1.528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 성적 공격성 <sup>a</sup>	-.017**	-.180	.006	-2.713
성적 착취	→ 성적 공격성 <sup>a</sup>	-.031**	-.215	.012	-2.619
성적 권리	→ 성적 공격성 <sup>a</sup>	.002	.022	.008	.771
낮은 성적 공감	→ 성적 공격성 <sup>a</sup>	-.021	-.125	.012	-1.741
성적 스킬	→ 성적 공격성 <sup>a</sup>	-.005	-.045	.009	-.604

a. 성적 공격성은 역수 변환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

\*\*  $p<.01$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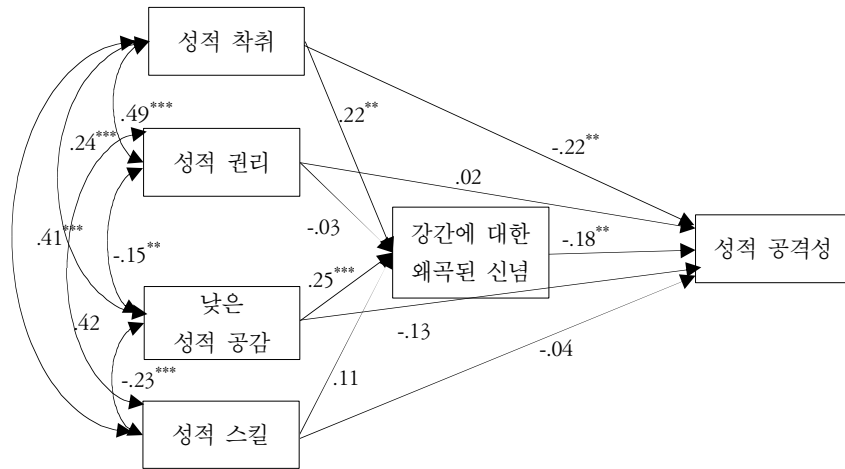


그림 3. 여성의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과 성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모형과 표준화계수 추정치

\*\*  $p < .01$ , \*\*\*  $p < .001$

표 7. 여성의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과 성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

경로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i>p</i>
성적 착취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 성적 공격성	-.039	[-.100, .017]	.134
성적 권리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 성적 공격성	.006	[-.020, .036]	.680
낮은 성적 공감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 성적 공격성	-.045	[-.119, -.013]	.127
성적 스킬 →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 성적 공격성	-.202	[-.061, .011]	.222

Bootstrap = 1000

되구간은 모두 0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은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성적 착취만이 성적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고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애의 각 하위요인

들이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매개로 하여 성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 집단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성적 착취와 성적 스킬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성적 권리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남성이 더 높게, 성적 공격성은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idman와

McNulty(2010)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여성의 성적 권리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서 나온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다소 민감한 주제로 구성된 본 연구의 설문을 끝까지 응답한 여성은 자신의 ‘성’ 경험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남성이 더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행연구(이석재, 최상진, 2001)와 일치하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가해자에게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공격성에서는 남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남녀 모두 성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선행연구(Schatzel-Murphy, Harris, Knight, & Milburn, 2009)와 일치한다. 즉, 여성도 남성처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상대방을 협박하는 등의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적 공격성의 평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남녀 모두 높은 성적 공격성을 보인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성적 공격성에서의 남녀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겠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각 변인들 간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성적 스킬이, 여성의 경우 성적 권리가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성적 자기주장이 성적 관계를 주체적으로 이끌고 성적으로 주장적인 여성은 여성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왜곡된 신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혜립(2019)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남성의 경우 자신의

성적 스킬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성적 관계에 만족감을 느껴 대인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McNulty와 Widman(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과 성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성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남성일수록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하고 추후에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Bushman 등(2003)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성적 착취와 낮은 성적 공감에서만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래 성적 자기애적 성향은 자기애적 성향과 관련되고, 자기애는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데(Baumeister, Catanese, & Wallace, 2002), 착취적 성향의 남성들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입장만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매개로 성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착취적 혹은 권리적인 자기애적 성향이 성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남성성, 타인에 대한 오해가 매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미루어볼 때(Abbey, Jacques-tiura, & Lebreton, 2011) 착취적 성향이 공격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성적 공감은 타인의 입장을 평가절하하는 것으로(Widman & McNulty, 2010) 공감능력이 부족하면 타인의

의도를 오해하기 쉽고(Wegner & Abbey, 2016) 오해석된 여성 행동은 성적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Abbey et al., 2011). 성적 권리와 성적 스킬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개인이 느끼는 우월감은 타인에게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길주현, 오경자, 2008)을 고려할 때, 자신이 성관계에서 우월하다고 느끼는 남성은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껴 공격성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McNulty와 Widman (2013)은 자신의 성적 스킬이 뛰어나다고 판단하면 결혼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성적 스킬이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될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즉, 자신의 성적 스킬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현재 상황에 만족감을 느껴 성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강간에 대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성적 착취만이 성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성적으로 착취적인 여성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여성의 착취적이고 권력적인 특성이 타인을 조종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강압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Blinkhorn et al., 2015; McNulty & Widman, 2013). 또한, 여성에게서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남성과 달리 여성은 성적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인 문제 행동이 발현될 때 인지적 요소보다는 성격적 특성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유사한 예로, 성적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여성은 남성보다 자신의 연인관계와 다른 사람들의 연인관계를 비교하며 자신의 연인관계를 평가절하하고 짜증을 낸다고 보고되었다(Day,

Muise, & Impett, 2017). 이는 여성이 성적 관계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데 착취적인 속성의 성적 자기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요약하면, 남성의 경우 성적 자기애의 개별 하위요인들은 성적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매개로 성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왜곡된 인지 체계가 남성의 성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착취적 성격 특성만이 성적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성격적인 취약성이 성적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성적 자기애보다는 일반적 자기애가 드러내는 외현적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적 영역에 특화되어 있어 있는(Widman & McNulty, 2010) 성격 특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과 성적 공격성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로 남성의 성적 공격성만을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해외에서는 성적 공격성이나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남녀 모두의 특성이라고 이해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추세이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특성이 남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전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적 공격성에서 남녀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성적 자기애와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 및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

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셋째,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이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매개로 하여 성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 집단에서 따로 확인하였다. 남성에게는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여성에게는 이러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적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인 문제행동이 드러나는 기제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성적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취약성이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나 개입 방법도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남녀 20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모든 연령층으로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통적인 성역할과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수용하고(백선미, 2005; Boakye, 2009) 성폭력에 대해 더 관대한 태도를 가진다는 이선경 등(2015)의 연구결과는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성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령별로 세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 내용이 실제 성적 가해 경험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범죄 집단인 연구 대상자로부터 편향된 응답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성범죄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성적 공격성으로 향하는 메커니즘이 일반 집단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는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 참여자가 설문에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문항 내용이 민감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하였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보여주는 Bushman 등(2003)의 실험절차 등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척도가 기본적으로 남성을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성적 가해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여성의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평가도구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집단에서 성적 자기애의 하위요인과 성적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남성의 경우 성적 착취와 낮은 성적 공감에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매개로 성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남성의 경우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수정한다면 성적으로 공격적인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피해자인 여성에게 성폭행 발생 원인을 돌리는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사회적 분위기가 남성 중심적인 경우에 더 잘 형성되기 쉽다. 따라서 양성 평등적인 관점에서의 성인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여성을 비난하고 가해자를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성의 경우에는 성적 공격성에 대한 결정적인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성적 공격성을 보이는 여성에게는 성적 자기애적 성격 특성에 대

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개인의 성격적 취약성은 변화가 어려운 경향이 있어 성격 특성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성적인 관계 형성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 행동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남성에게는 성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보다 바람직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에게는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 착취적인 성향과 같은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와 개입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주현, 오경자 (2008). 자기애의 세부특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4), 911-924.
- 김성미, 임성문 (2017).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성적 공격성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34(1), 19-54.
- 김홍규, 허은주 (2003). 대학생의 심리적 성숙 변인과 성태도와의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10(4), 403-422.
- 대검찰청 (2017). 10년간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 박갑제, 임성문 (2013).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 경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1), 45-44.
- 박경 (2006).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3), 327-344
- 박경 (2008).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간의 관계: 공감 및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의 중재 및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19-536.
- 박다원, 이인혜 (2015).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377-394.
- 박다원, 이인혜 (2016). 자기애적 과시, 허용적 성태도,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 153-172.
- 박지선, 김정희 (201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19(2), 77-96.
- 백선미 (2005).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정, 정수연, 양혜린 (2017).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 지원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보고서*, 2017, 1-248.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 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선경, 팔로마베나비테스, 허용희, 박선웅 (2014).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시교차적 메타분석(1999-201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609-628.
- 이선경, 허용희, 박선웅 (2015).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9(1), 65-81.
- 이종욱 (2017). 군인들의 양성평등 의식이 성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 위 논문.
- 이혜림 (2019).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진숙, 박경 (2006). 남녀 대학생 성피해 경험과 성인지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심리치료: 다학제적접근, 6(2), 61-80.
- 조현빈 (2006).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심리의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2, 39-59.
- 최인숙, 김정인 (2015).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 폭력수용 및 성역할-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277-300.
- 최정환, 박은영 (2017). 성적 자기애 척도의 타당화. 보호관찰, 17(2), 171-198.
- Abbey, A., Jacques-tiura, A. J., & Lebreton, J. M. (2011). Risk Factors for Sexual Aggression in Young Men: An Expansion of the Confluence Model. *Aggressive Behavior*, 37(5), 450 - 464.
- Aronowitz, T., Lambert, C. A., & Davidoff, S. (2012). The role of rape myth acceptance in the social norms regarding sexual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9(3), 173-182.
- Barner, J. M. (2003). Sexual fantasies, attitudes, and beliefs: The role of self-report sexual aggression for males and females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U.S.
- Baumeister, R. F., Catanese, K. R., & Wallace, H. M. (2002). Conquest by force: A narcissistic reactance theory of rape and sexual coerc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1), 92-135.
- Blinkhorn, V., Lyons, M., & Almond, L. (2015). The ultimate femme fatale? Narcissism predicts serious and aggressive sexually coercive behaviour in fem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7, 219-223.
- Boakye, K. E. (2009). Attitudes toward rape and victims of rape: A test of the feminist theory in Ghana.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10), 1633-1651.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 - 230.
- Bushman, B. J., Bonacci, A. M., Van Dijk, M., & Baumeister, R. F. (2003). Narcissism, Sexual Refusal, and Aggression: Testing a Narcissistic Reactance Model of Sexual Coerc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27 - 1040.
- Cook, S. L., Gidycz, C. A., Koss, M. P., & Murphy, M. (2011). Emerging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rape victimization. *Violence Against Women*, 17(2), 201-218.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ay, L. C., Muise, A., & Impett, E. A. (2017). Is comparison the thief of joy? Sexual narcissism and social comparisons in the domain of sexu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3(2), 233-244.
- Fisher, N. L., & Pina, A. (2013). An overview of the literature on female-perpetrated adult male sexual victimizat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8(1), 54-61.
- Franz, M. R., Haikalis, M., Riemer, A. R., Parrott,

- D. J., Gervais, S. J., & DiLillo, D. (2018). Further validation of a laboratory analog sexual aggression task: *Associations with novel risk factors for sexual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33*(3), 486-503.
- Howell, D. C. (2009). *Statistical methods for psychology*. Cengage Learning.
- Hurlbert, D. F., & Apt, C. (1991). Sexual narcissism and the abusive male.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17*(4), 279-292.
- Hurlbert, D. F., Apt, C., Gasar, S., Wilson, N. E., & Murphy, Y. (1994). Sexual narcissism: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0*(1), 24-34.
- Imhoff, R., Bergmann, X., Banse, R., & Schmidt, A. F. (2013). Exploring the automatic undercurrents of sexual narcissism: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sex-aggression link.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2*(6), 1033-1041.
- Johnson, R. (2009). An investigation of sexual narcissism as a predictor of sexual assaul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Chattanooga, U.S.
- Koss, M. P., & Dinero, T. E. (1988). Predictors of sexual aggression among a national sample of male college student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528*(1), 133-147.
- Koss, M. P., & Oros, C. J. (1982). Sexual experiences survey: a research instrument investigating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3), 455-457.
- Koss, M. P., Gidycz, C. A., & Wisniewski, N. (1987). The scope of rap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2), 162 - 170.
- Krahé, B., & Berger, A. (2013). Men and women as perpetrators and victims of sexual aggression in heterosexual and same sex encounters: A study of first year college students in Germany. *Aggressive Behavior, 39*(5), 391-404.
- Larimer, M. E., Lydum, A. R., Anderson, B. K., & Turner, A. P. (1999). Male and female recipients of unwanted sexual contact in a college student sample: Prevalence rates, alcohol use, and depression symptoms. *Sex Roles, 40*(3/4), 295-308.
- Long, A. D. (2018). *An Empathy Prime Study of Narcissism and Rape Myth Acceptance Among Heterosexual College Males*. Doctoral dissertation,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C, U.S.
-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2), 133-164.
- McDermott, R. C., Kilmartin, C., McKelvey, D. K., & Kridel, M. M. (2015). College male sexual assault of women and the psychology of men: Past, present,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6*(4), 355 - 366.
- McNulty, J. K., & Widman, L. (2013). The implications of sexual narcissism for sexual and marital satisfac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2*(6), 1021-1032.
- McNulty, J. K., & Widman, L. (2014). Sexual narcissism and infidelity in early marriag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3*(7), 1315-1325.

- Schatzel-Murphy, E. A., Harris, D. A., Knight, R. A., & Milburn, M. A. (2009). Sexual coercion in men and women: Similar behaviors, different predictor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8(6), 974-98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itzberg, B. H. (1999). An analysis of empirical estimates of sexual aggression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Violence and Victims*, 14(3), 241-260.
- Struckman-Johnson, C., & Struckman-Johnson, D. (1998). The dynamics and impact of sexual coercion of men by women. In P.B. Anderson & C. Struckman-Johnson (Eds.). *Sexually Aggressive Women: Current perspectives and controversies*, (pp. 121-143). New York, NY: Guilford Press.
- Tabachnick, B. G., Fidell, L. S., & Ullman, J. B.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Vol. 5). Boston, MA: Pearson.
- Wegner, R., & Abbey, A. (2016). Individual differences in men's misperception of women's sexual intent: Ap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confluence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4, 16-20.
- Wheeler, J. G., George, W. H., & Dahl, B. J. (2002). Sexually aggressive college males: Empathy as a moderator in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5), 759-775.
- Widman, L., & McNulty, J. K. (2010). Sexual narcissism and the perpetration of sexual aggress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4), 926-939.
- Wright, M. O. D., Norton, D. L., & Matussek, J. A. (2010). Predicting verbal coercion following sexual refusal during a hookup: Diverging gender patterns. *Sex Roles*, 62(9-10), 647-660.

1차원고접수 : 2019. 10. 20.

심사통과접수 : 2019. 12. 09.

최종원고접수 : 2019. 12. 10.

## **The Effect of Sexual Narcissism on Sexual Aggression in Young Adults: Mediating Effect of Rape Myths**

**Yeonjoo Hong**

**Joo-Young Lee<sup>†</sup>**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xual narcissism on sexual aggression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rape myths. A total of 460 Korean men and women in their 20s completed online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ubtypes of sexual narcissis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skills were higher in males and sexual entitlement was higher in females. Rape myths was higher in men and sexual aggression did not differ between men and women. Second, both men and wome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xual narcissism and rape myths. Higher sexual narcissism tended to correlate with higher sexual aggression except for sexual skills in males and for sexual entitlement and sexual skills in females. In addition, both men and women showed higher sexual aggression as they accepted the rape myths.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rape myths was significant only in ma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narcissism and sexual aggression. For women, only sexual exploitation, a subtypes of sexual narcissism, directly affected sexual aggres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ognitive processes such as rape myths play an important role in men, while sexual narcissism is more critical in women.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sexual narcissism, rape myths, sexual aggression